

‘명량대첩 전승지 울돌목’ 해남관광 핫플레스로 부상

‘회오리 바다 스릴’ 해상케이블카·스카이워크 올해 개통
명량대첩축제·역사체험마당 등 연계 시너지 효과 기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전승지인 해남 우수영 울돌목 일대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해남 관광의 핫 플레이스’로 거듭난다. 해남군은 협수로인 울돌목의 자연환경과 명량대첩의 호국유적 등을 활용해 문내면 우수영관광지를 지역 중심의 핵심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곳에는 올해 울돌목 회오리 바다의 짜릿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해상케이블카와 스카이워크가 준공된다. 우수영 문화마을을 법정스님 생가에 들어서는 인문하루스는 오는 2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우수영 역사관광촌도 조성된다. 우수영 관광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해상케이블카는 우수영 관광지와 진도 녹진타워를 오가는 총길이 960m로 350억원이 투입돼 올

하반기 명량대첩축제에 맞춰 개통된다. 또 투명유리로 만들어져 울돌목의 바다 위를 걷는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스카이 워크’는 오는 6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길이 110m, 직선길이 32m, 주탑의 높이는 25m로 건설되는 스카이워크는 한반도를 형상화한 해남군의 상징마크와 회오리바다, 강강술래 등을 모티브한 동근모양으로 꾸며진다. 야간에는 조명을 설치해 바다와 환상적인 풍광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울돌목은 임진왜란 당시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선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전승지로 해남과 진도의 경계를 흐르는 길이 2km의 수로이다. 유속이 빠르고 바닥이 거칠어 급류가 서로 부딪혀 우는 소리를 낸다고 하여 울돌목이라



해남 울돌목 해상케이블카 조감도



해남 ‘울돌목 스카이워크’ 조감도

고 불린다. 우수영관광지 일대에서는 지역의 대표축제인 명량대첩축제는 물론 명량역사체험마당 등이 열리고 있다. 명량역사체험마당은 강강술래 체험과 문화공연, 저갯거리의 연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인접한 우수영 문화마을은 주민들의 생활사를 엿볼 수 있는 생활사박물관과 벽화, 아트카페, 강강술래 길 등이 조성돼 있다. 군은 이들 기존 프로그램과 함께 올 개통되는 해상케이블카와 스카이워크 등의 시설이 연계되면 새로운 관광 시너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그동안 울돌목 우수영은 호국정신에 기반한 전통적인 부분에 집중되다 보니 신규 관광객 유입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해상케이블카 등이 개통되면 젊은층은 물론 다양한 층의 관광객들이 찾는 명품 관광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시 현안 정치화에 ‘불편한 속내’ 드러내

민간공항 이전 당초 약속 지켜야

김영록 전남지사는 10일 “광주 민간공항은 당초 합의한 대로 올해까지 이전할 수 있도록 광주시의 대응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KBC광주방송의 신년 기획 토론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군공항 이전의 경우 광주시가 이전 지역에 대한 주민수용성에 무게를 둔 종합지원책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하고 특별법 제정도 병행해야 한다”며 “이전지역 주민과의 대화를 이룰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될 경우 이는 해결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지사는 “이 같은 현안은 국가적인 사안인 만큼 정부와 협의해 풀어나가야 한다”며 “현재 할 수 있는 사업은 차근차근 진행하되 불필요하게 이를 정치화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가 민간공항 이전을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고 현안사업을 정치화한 데 대한 불편한 속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 “초광역 협력사업이나 경제 협력사업을 발굴해 기반 여건을 만드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정부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통합청사 소재지 문제로 논의의 장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현재 시·도청이 통합 이후에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전남도가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전남의 미래를 위한 사업으로 에너지밸리 조성을 비롯해 해상풍력 발전단지, 바이오산업, 기후변화 대비, 관광산업, 초강력 레이저센터의 유치 등을 제시했다.

김정환기자

순천시, 전국 첫 ‘낮술 금지’ 행정명령 해제...확진자 발생 주춤

오늘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 해제 “선제적 제압, 고통 줄 일것 판단”

순천시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발령한 ‘낮술 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했다. 순천시 임채영 부시장은 이날 오전 순천 시청에서 ‘코로나19’ 비대면 영상브리핑을 통해 “11일 0시를 기해 낮술 금지를 포함해 강화된 방역지침을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새해 첫날부터 종교시설 연관 등 ‘코로나19’확진자가 줄을 잇자 지난 4일부터 오후 4시까지 주류판매를 금지하는 일명 ‘낮술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 α(알파)를 실시하면서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에서의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집합도 금지토록 했다. 순천시가 11일 0시부터 강화된 방역 지침을 해제함에 따라 식당에서 주류 판매를 막았던 ‘낮술 금지’와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의 집합 금지도 모두 해제했다. 5인 이상 모임이나 시골교회 등의 20인 이하 대면 예배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실정에 맞게 계도할 예정이다. 임채영 부시장은 “낮술 금지라는 초유의 행정명령 발령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수많은 시민의 어려움과 고통이 예견됐음에도 방역 당국이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선부터 낙관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제압만이 더 길어질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하에 내린 특단의 조치였다”면서 “시민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앞서 순천시는 일부 젊은 층이 오전 5시에 줄을 서서 식당에 입장하는 모습이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전해지자 ‘코로나19’방역을 저해하고 감염병을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했다. 시는 2주간 ‘낮술 금지’ 행정명령 등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에 들어갔으나 시민들이 애용하는 국밥집의 반주 한잔과 치킨집의 생맥주 한잔도 못 하게 하느냐는 일부의 지적에 고심했다. 하지만 낮술 금지 일주일만 지나도 확진자 발생이 주춤하고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술선택 진단검사를 받으면서 ‘양성 판정’이 현저히 주는 등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순천시에서는 1월 1일부터 3일까지 15명의 ‘코로나19’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3차 확산세가 우려됐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